

삶을 긍정하는 격렬한 정신의 빛

독립큐레이터 김옥렬씨가 뽑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



“니체의 허무주의는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맞닥뜨린 운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적극적 허무주의’ 예요. ‘운명이여 나에게 오라 나는 너와 맞서겠다!’ 고 외치는 거죠.”

대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독립큐레이터 김옥렬씨(38)가 서가에 뽑은 책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김대경, 청하)이다. 어쩌면 그가 니체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했고 니체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니체의 그 많은 저작 가운데서도 왜 하필 《비극의 탄생》일까?

“이 책은 초기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죠. 무엇보다 제 마음을 끈 건 비극을 해석하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세계관이예요.”

그가 갖고 있는 《비극의 탄생》 번역본만 해도 세 종(청하, 범우사, 박영사)이나 된다. 거기에 독일어판 《니체 전집》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다. 그가 니체를 처음 접한 건 대학 시절이었다. 니체를 만난 이후 “죽은 사람(니체)이 더 매력적이어서”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랑도 한번 못 해봤다. 니체는 하나의 격렬한 정신의 가상세계였고, 그는 대학시절 내내 거기 빠져 있었다.

그가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발붙인 현실세계와 조화를 꾀하게 된 건 미술전시 기획을 시작한 무렵부터다. 1996년 <드로잉, 언어와 소통전>을 시작으로 <여성의 여성전> <해체와 무저항의 메타포전> 등 1년에 한두회씩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미술전시가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형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전시회를 기획한다.

그에겐 ‘대구 미술의 이단아’ 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한다. 그가 기획하는 전시회가 미술관의 벽을 넘어 갖가지 매체의 형식실험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표현이 도리어 반갑다. 자신이 제도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 자체가 곧 ‘니체적’ 이라는 말이 기 때문이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맞닥뜨린 운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적극적 허무주의’ 예요. ‘운명이여 나에게 오라 나는 너와 맞서겠다!’ 고 외치는 거죠.”

그가 서울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전시회를 활발하게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니체적 세계관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탓이다. 그는 9월쯤 대구 수성못에서 <썸머 도큐멘타 - 성주이미지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가 또 어떤 ‘니체적 가상’을 펼쳐놓을지 사뭇 기대된다. - 대구·김장근 기자



© 2000. Um, Mi Keum

우리의 겨레그림(민화) 중에는 문자도(文字圖)가 있습니다. 흔히 「효제도(孝悌圖)」로 불리는 이 그림문자는 삶의 덕목인 효(孝)·제(悌)·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등 여덟 글자에 회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길상적(吉祥的) 소망을 이루고자 한 선조님들의 비범한 시각교육 자료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孝」자에는 잉어·죽순·부채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진(晉)나라의 왕상(王祥)은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에 기슭으로 얼음을 녹인 뒤 잉어를 잡아 계모에게 드린 효자였습니다. 오(吳)나라의 맹종(孟宗)은 한겨울에 대나무 숲에 앉아 평평 울어 그 눈물로써 죽순을 돋게 하여 그것을 따다가 어머니께 드린 효자였습니다. 한(漢)나라의 황향(黃香)은 한여름 내내 부모의 머리맡에서 부채질을 해드린 효자였습니다. 이처럼 문자도는 글자의 뜻을 바로고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회화적 의미를 가미시킨 우리 선인들의 지혜로운 예술이었습니다.

완자무늬는 「우리의 땅 우리 민족 우리 문화」에 뿌리를 내리려는 출판사 대표들과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연락주십시오.
E-mail / wanja3533@hanmail.net